

삼과 신앙

기도의 마무리

기도의 마무리 과정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마지막도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며"를 가르치고 있다. 왜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인가?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를 한 후에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사단은 죽은 심령, 무능한 심령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를 마치게 될 때, 마지막으로 성령을 소멸하게 할 수 있는 자신의 약점을 염두에 두고 시험(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것은 감정일 수 있고, 영적 교만으로 나타날 수 있다. 혹은 인터넷이나 세속적 즐거움이 주된 유혹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에게 침투하기 쉬운 교만 대신 겸손한 태도를 갖게 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한 후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기도를 마무리한다. 이는 주님의 가르침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요 16:24)

이 놀라운 명령을 단순하게 주술적 의미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백을 요구한다. 바로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교백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의 기도로 전락하고 만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기도다운 기도를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합심 기도의 핵심도 바로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18:19 말씀 보면 주님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하셨다. 그리고 뒤이어 말씀하시기를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20절)고 하셨다.

이는 합심기도의 핵심이 모인 숫자에 있지 않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합심기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앙교백의 일치'가 필요하다. 안목에 일치가 되지 않으면 합심기도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합심기도가 가능하려면 성경의 가르침에 굴복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사람들을 하나의 목적으로 일치시켜 기도하게 만드는 주체는 성령님이다. 성령께서 회중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집중시키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개인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내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고 연연중에 교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 가르침에 충실하게 된다.

- 김민호 목사 -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의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7월은 복음의 증언인 **삶을 사는 달**, 8월은 도역의 달입니다.
여호와의 임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으로 독수리처럼 힘차게 나는 삶을 누립니다.

1. 오늘은 **선교주일**이며 금주는 **선교주간**입니다.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 전도자,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 **섬김의 교회 설립 4주년**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회를 세우느라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 회복과 나눔의 사역이 풍성하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합니다.
3. 오늘 **주일친교**는 설립 4주년감사 기념으로 가집니다.
4. 오늘 여름학기 **주일성경공부**는 휴강입니다.
5. **방학**: 자녀들이 시간을 지혜롭고 활용하며, 방학을 보람 되게 보내도록 관심과 격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6.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7. **교우와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일 축하**♥ 오정은(7/14) 이광호 (7/14) 홍현근(7/18) 구은강 (7/28)

예배와 양육, 말씀과 기도, 교제와 나눔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건강하게 성장하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운정 학생(누)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소선지서/에스라/느헤미야/부흥강의들)를 위해

예배 섬김 이	주일예배기도	7/21	7/28	8/4	8/11
		고순제전도사	최내권집사	장영현전도사	최선운집사
주일 헌금 위원	주일헌금위원	7/21	7/28	8/4	8/11
		김훈태집사/유동숙집사	박진성집사/오정은집사		
주일 안내 위원	주일안내위원	7월		8월	
		최내권집사		구민집사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말 말씀요약〉 12 개의 돌로 세워진 길갈의 기념비 / 여호수아 4:15-24

요단강을 건넌 후, 요단강 가운데서 취한 열 두 개의 돌로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다.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한 번 체험하고 까맣게 잊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기 위해서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기도의 응답은 금은 보화보다 귀한 신앙자산이 되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자산은 앞에 놓인 인생 속제를 풀며, 마주하는 고난을 능히 이기는 힘이 된다. 더 나아가 자녀를 가르치며 물려줄 신앙유산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고, 그 체험을 발판 삼아 더 크게 성장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

무엇이 우선인가? -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 / 여호수아 5:1-9

요단강을 건넌 후, 여리고를 향해 진격하지 않고 할례를 행합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유익을 정리해봅시다.

첫째,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특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의무를 가집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증과 증거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증거하십니다.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과 자신감으로 무장하고 나아가 승리합니다!

무엇이 우선인가? -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 / 여호수아 5:1-9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행한 할례를 통해 가장 중요하며 먼저 할 것이 무엇인지 목상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하나님은 여리고를 향한 진격이 아니라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할례는 언약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시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할례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광야 40 년 동안은 할례를 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에 앞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적어도 두 가지의 유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할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멸해야 할 가나안 족속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족속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이 죄인입니다. 이들 사이의 유일한 차이점은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그 사실만이 그들을 가나안 족속들과 구별하였습니다. 때문에 거룩한 표징을 가져야 했습니다. 이 구별을 위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언약백성의 의무입니다. 또한 거룩함은 언약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별된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둘째, 할례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태어난 언약 백성이었지만, 그 신분에 준한 표징을 갖지 못했습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느낄 때, 자신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물론 이들은 지난 40 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았지만, 아직까지 부족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확증이 필요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증거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육체에 행한 할례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면, 우리는 더욱 더 큰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할례보다 더 확실하고 더 큰 표징을 가졌습니다. 그 표징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으로 때문에 우리는 육체가 아닌 마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며, 우리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증거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열등감은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례를 통하여 거룩함과 자신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깨닫고, 스스로를 구별하였습니다.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과 자신감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함과 자신감으로 무장하고 나아가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네 영이 장로 된 것이 내가 범사에 참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도라”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

치유, 회복, 나눔

July 28, 2019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 성경 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60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www.churchofservant.com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달
선교주일
선교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포화상태 살 때
안타까울 때
어려울 때
어려움만 아니라



당신은 약할지라도
당신 안의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것